

출애굽기 21 장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소유자의 책임

1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2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일곱 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12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3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23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36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 21 장부터 23 장까지는 같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법들이 나옵니다. 서로 같이 살다 보면 닥치는 일들이 있을텐데 어떤 일을 하기 앞서서,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게 하는 율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장 11 절까지는 종에 관한 율법인데, 히브리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종이 될 수 있지만 7 년이 되면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3 장 10 절에 나오는, 7 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과 연결이 됩니다.
- 당시 관습으로는 여자를 사서 종이나 아내로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이 관습을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관습하에서 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율법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은 종의 필요를 인정하지만 종을 장려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만들어진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합니다. 살인자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실수로 인하여 살인을 했을 경우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드는데 13 절과 14 절의 내용이 이와 연결이 됩니다.
- 17 절의 내용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존중이 묻어나는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3 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처벌이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게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피해를 끼친 사람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라 보상을 해야 하는데,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기준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입니다. 이 원칙에 대하여, 마태복음 5 장 38-39 절에서 예수님은 이 원칙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방식으로 대체하십니다.
- 21 장 33 절부터 22 장 15 절의 내용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었는가

(21:36), 도둑을 죽인 시점이 낮인가 밤인가 (22 장 2, 3 절), 도둑을 맞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22 장 7-12 절). 이러한 자세한 규정은 공동체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서 사람들 간의 불화를 해소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2 장 18-20 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회안에 하나님이 역겨워 하시는 문제의 여지를 아예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술, 짐승과의 교접, 우상숭배 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보호와 배려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외국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로 살았음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 22 장 25-27 절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보이는 법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챙겨주라고 하십니다
- 22 장 29 절-30 절에 나오는 만아들 또는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은 민수기 3 장 13 절에 나옵니다. 출애굽 할 때,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의 것들은 보호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23 장에서 안식년에는 땅을 놀리게 되어 있어서 무엇을 새로 심거나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안식년에는 새롭게 씨를 뿌려서 수확량을 늘리거나 이윤을 내기 위해 팔 수는 없었지만 저절로 생긴 열매나 곡식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안식년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가지 절기가 23 장 14-18 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일년에 세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는데 그 절기는 무교절 (유월절), 맥추절 (중간 추수), 수장절 (가을 걷이) 입니다. 레위기 23 장 9-22 절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는 감사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3 장 20-23 절에, 천사를 보내겠다고 하시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가 여기에 속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5 장 13-15 절에 나오는 '주님의 군 사령관' 도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23 장 29-33 절에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경고가 같이 보입니다